

## 한국 양계산업 이래서 안 된다, 이래서 잘 된다.



강 석 진 (주)우진비엔지 대표/본지 편집위원

지금은 어딜 가나 화제가 홍보와 변화에 대한 대응이다. 아침에 눈뜨면 텔레비전부터 켜는 것이 가정마다의 습관이 되었다고, 화면은 광고 선전부터 시작되니 우리는 가히 홍보최면 상태로 사는 것 같다.

산업마다 만들면 팔리던 시대는 옛날이고, 필사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성장하려면 지능적인 홍보로 확실하게 소비자의 마음을 잡아야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지난 5월 'KBS 환경스페셜'에서 양계장이 방영된 후에 필자는 몇 군데 모임에서 "계란 먹어도 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구구절절이 오해를 설명하는 동안, 방송의 위력을 새삼 느끼면서, 우리의 양계업도 크게 발전하여 이제 어엿한 한 산업이 되었는데 어찌 이렇게 오도당하기만 하는지 조금은 분통스러웠다.

닭고기는 계열 주체들이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상품도 개발하고, 홍보도 하여 나은 편이지만, 계란의 경우, 우리보다 훨씬 더 건강을 챙기고 소득이 높은 일본이 일인당 연 평균 330개를 소비하는데, 우리는 겨우 208개 수준이면서 아직도 생산만하면 팔리는 시대로 착각하고들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여타산업들은 번덕스러울 정도로 까다로워지고 있는 소비자들의 만족을 위해 최상의 품질은 기본

이고 상품의 디자인, 애프터서비스까지 감격스러울 정도의 칭송을 받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회적 호감도 얻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있다. 양계도 그 옛날의 농업이 아니라 한 기간산업으로서 빠르게 변해가는 경영환경에 더욱 잘 적응해야 함은 당연한 현실이다.

갈수록 높아가는 소비자의 안전 식품에 대한 욕구, 민감해지고 있는 환경오염문제,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인 깊은 관심, 그리고 개방에 따른 국제 경쟁력, 끈임 없이 위협하고 있는 질병, 복지를 원하는 종업원, 치솟기만 하는 사료원료가격 등은 잠시도 긴장을 풀 수 없는 극복해야 할 과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도 같은 상황이며, 축산 뿐 아니라 모든 산업이 갈수록 어려움이 많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따라서 성공하는 자와 실패하는 자가 있기 마련이다.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었던 고 이규태 선생님께서서는 “한국인, 이래서 잘 산다, 이래서 못 산다”라는 책에서 우리가 못하는 이유로 의존적 성향과 피해자의식으로 내가 잘못된 것은 조상·세상 탓으로 핑계를 돌리는 습성, 조금 멀리 있는 것에 대한 사려 부족,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픈 평균 지향적 성향, 결과에만 집착하며 과정에 소홀하고 기다릴 줄을 모르는 조급성, 이성보다 감각이 앞서고, 실용보다 형식을 찾고, 합리성보다 감정적이어서 따져보는 것을 싫어한다.

한국인의 장점으로 두드러지게 부지런한 근면성과 이해타산, 피로, 불만 등 모든 것이 승화되는 유별나게 강한 가족의식, 눈앞에 닥친 일은 빠르고 현명하게 처리하는 능력, 누군가 어려워지면 잘 돕는 것, 등은 미래 경제를 부양 시킬 수 있는 훌륭한 정신적 자원이라고 했다.

인류 역사에서 보면 문제는 풀리기 위해 생긴 것이었으며, 위기 속에 새로운 기회가 숨어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지금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는 우리는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고칠 점은 고치고 장점은 살려서 풀어간다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조선업, 자동차산업이 세계에서 으뜸이 된 것은 여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 국민성의 장점 때문이겠으며, 네덜란드가 축산선진국이 된 것도 여건이 좋아서가 아니었다고 한다.

한미간 FTA가 발효되면 한국축산은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실행이다. 우리는 이미 국제경쟁 속에서 현재 축산을 하고 있으며, 수출도 하고 있다. 그동안도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닥칠 때마다 현명하게 풀어왔으며, 축산보다 더 심각한 쌀도 미국에 수출하기 시작했다. 미국보다 중국이 더 무섭다고 하지만 세계적 농업석학들 52인이 쓴 중국농업 2050년의 전망을 보면, 축산물 소비증가로 지금도 수입하고 있는 사료자원의 수요량이 두 배가 넘을 것이라 한다. 넓은 땅에 저렴한 인건비라고 하지만 사료자원을 수입해야 하는 것은 같으며, 양계산업은 집약산업에 자동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팽이버섯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듯이 오히려 우리의 장점을 발휘한다면 중국과도 경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명하고 부지런한 우리 국민성으로 양계업도 탄탄한 산업으로 성장하여 국내소비증가는 물론 수출도 많이 하여 제 2의 네덜란드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양계**